



이스라엘

Israel(State of Israel)

8월 16-17일 · 아시아

지리

면적 20,700km². 1967년 이후 웨스트뱅크, 가자 지구, 골란 고원을 포함한 7,540km² 지역을 이스라엘에서 관할하고 있다.

	인구수(명)	연성장률(%)	인구밀도(명/km ²)
2010	7,285,033	1.71	352
2020	8,306,679	1.21	401
2030	9,219,268	1.01	445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따로 다루었다.

수도 예루살렘 783,000명.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타 주요 도시** 텔아비브 3,300,000명, 하이파 1,000,000명. **도시화** 91.7%. **15세 이하 인구** 28%. **평균수명** 80.7세.

종족

유대인 75.5%, 28개 집단. 이스라엘계 유대인 23.1%, 러시아계 유대인 13.6%, 루마니아계 유대인 5.6%, 폴란드계 유대인 5.5%, 동이디시 유대인 4.7%, 마그레브족 4.4%, 스페인계 유대인(라디노) 2.7%, 야후딕 2.3%, 베타 이스라엘/팔라샤(에티

오피아인) 1.8%, 헝가리계 유대인 1.3%, 드지디족 1.2%, 독일계 유대인 1.2%, 프랑스계 유대인 1.1%, 예멘계 유대인 1.0%, 부카릭 유대인 1.0%.

아랍인 20.4%. 이스라엘계 아랍인/팔레스타인인 16.5%, 드루즈족 1.8%, 베두인족 1.3%.

기타 4.1%. 유럽인, 아프리카인, 중국인, 태국인, 필리핀인, 남북아메리카인. 수치는 더 클 수도 있다.

문자해독률 96.9%. **공용어** 히브리어, 아랍어. 세계에서 수많은 이민자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언어** 48. **토착어** 33. **성경이 번역된 언어** 전 12, 신 1, 부 6.

경제

현대적이고 복잡한 산업 국가로, 첨단기술, 생물 공학, 화학, 농업 분야가 잘 개발되어 있다. 신설 기업이 많지만, 안전을 위한 방어 비용과 새로운 이민자를 흡수하는 비용, 광범위한 담수화와 재사용에도 점점 커지는 물 부족의 위기 등이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스라엘은 천연자원이 부족하며, 석유, 석탄, 곡물, 군사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 지중해 아래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가스과 석유가 이스라엘의 에너지 사정을 상당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인간개발지수 182개국 중 27위. **공채 GDP**의 76.8%. **1인당 소득** 28,409달러(미국의 60%). **실업률** 8.2%.

정치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1,900년간의 유대인 추방이 막을 내렸다. 1948년, 1956년, 1967년, 1973년, 1982-1985년, 2006년 등 6차례에 걸친 주변 국가와의 전쟁과 2009년 가자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줄곧 전시체제였다. 되풀이되는 레바논에서의 무력 충돌, 팔레스타인 문제로 증대하는 국정 불안의 압박, 이슬람 집단(하마스, 헤즈볼라 등)이 자행하는 테러 행위인 인티파다, 점점 커지는 이란의 위협 등이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스라엘 사회는 평화과정, 분쟁 지역에 형성된 유대인 정착촌의 미래, 예루살렘과 골란 고원의 미래 등에 관한 문제 때문에 깊

이 분열되어 있다. 4개로 나뉜 정당(좌, 우, 종교적 극우, 아랍)은 극정통주의 유대인인 소수파 하레디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립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UN, 미국 등이 평화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되풀이한 노력은 단지 제한된 성공만 거두었다. 근본적으로 화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생겨난 분열과, 양측이 깊이 확신하는 바를 보면 장기적인 해결책을 그리기가 매우 어렵다.

종교

모든 종교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메시아 예수를 신봉하는 유대인이 종교 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 받지 못했고, 모임을 위한 집과 대지를 획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2009년에 이 법이 바뀌면서 메시아적인 교회도 기도의 집과 종교 단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극정통주의의 영향으로 개혁파와 보수파 유대인은 소외당할 때가 많다. 극정통주의에서는 반개종법을 시행하고 메시아닉 유대인을 핍박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을 가한다.

종교	인구 비율(%)	신자 수(명)	연성장률(%)
유대교	75.40	5,492,915	1.5
이슬람교	16.70	1,216,601	2.5
무종교	3.81	277,560	3.3
기독교	2.04	148,615	0.5
기타	1.90	138,416	2.3
바하이교	0.15	10,92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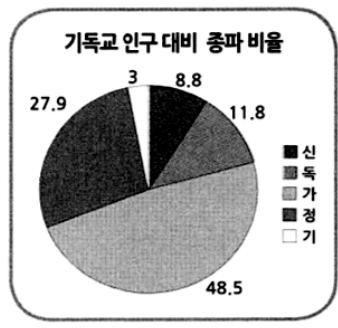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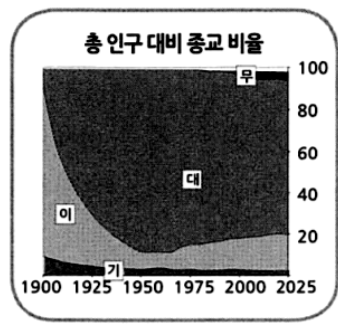
유대인 인구 가운데 약 25%가 정통파이고 20%는 세속적이며 나머지는 중간에 위치한다.

기독교	교단(개)	인구 비율(%)	최대교인 수(명)	연성장률(%)
개신교	43	0.18	13,000	5.9

독립교회	25	0.24	17,000	5.3
성공회	1	0.02	2,000	0.0
가톨릭	3	0.99	72,000	-0.6
정교회	7	0.57	42,000	-0.8
유사기독교	2	0.04	3,000	3.6

교단	종파	교회(개)	교인 수(명)	최대교인 수(명)
가톨릭(5개 전례)	가	80	42,604	72,000
그리스정교회	정	11	23,750	38,000
메시아닉성회	독	160	6,000	12,000
침례교연합	신	20	800	3,000
이스라엘침례교총회	신	30	1,500	3,000
여호와와의증인	유	21	1,480	2,960
하나님의성회	신	15	1,150	1,500
감독교	성	3	833	1,500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	44	800	1,200
콥트정교회	정	2	639	1,150
기타[65]		1,245	6,565	12,400
계[81]		510	86,121	148,710

초교파집단	인구 비율(%)	신자 수(명)	연성장률(%)
복음주의			
복음주의	0.4	31,045	5.6
갱신주의			
은사주의	0.3	22,472	4.9
오순절주의	<0.1	3,080	4.5



기도 응답

1 이스라엘 안에서도 눈에 떨 정도로 유대인이 복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난 수년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복음에 대해 문이 열리면서 이스라엘인을 둘러싼 딱딱한 껍질이 하나들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 현재 1만 2,000명 또는 훨씬 많게까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심지어 하레디(극정통주의 유대인) 출신도 있다. 메시아닉 유대인은 점차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핍박도 커진다.

2 세계적으로 1,450만 명의 유대인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상당하다. 적게 잡은 수치를 보더라도 전혀 없는 반응을 알 수 있으며, 더 낙관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교회에 속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는다고 말한다. 신자들은 대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뿐 아니라 북아메리카에 있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주류 기독교 교단에 통합되어 있다.

기도 제목

1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유대인 역사상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처럼 보인다. 이것을 예언의 성취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겔 20:32-34, 36:16-24). 많은 사람이 신앙 없이 옛 땅으로 돌아왔지만, 주로 동유럽, 러시아, 에티오피아에서 온 귀환자 사이에서 메시아 예수를 믿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가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기도하자(롬 11:25-31). 최근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수천 명의 유대인이 성경에 의지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2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을 두고 벌어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은 1948년 이래 그 정도가 심해지다가 한 세기를 넘으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갔다. 서로 다른 주장과 의제로 겨루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다. 양쪽 모두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 양쪽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발견하도록 기도하자.

1) 외부 폭력과 전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가자 지역에서 정착민과 군인이 철수한 2005년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09년 침공 사이에 3,500개가 넘는 로켓이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되었다. 점점 커지는 헤즈볼라의 힘, 알카에다의 위협, 점점 거슬리는 이란의 발언 모두 잠재적인 분쟁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2)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전 장벽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지역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이동과 접근이 매우 어려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장벽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심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은 적대적인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시도록 기도하자.

3 기독교에 대해 유대인이 보이는 태도는 종종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일부로 적대감을 특징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극복해야 할 장벽이다. 핍박 때문이든(대학살과 같은) 개종 때문이든, 유대인 국가에게 기독교 국가는 파괴자로 보인다. 복음을 유대인 유산의 성취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메시아께 돌아오는 일이 널리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활동적이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메시아닉 신자의 유대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가 결국에는 훨씬 많은 유대인을 신앙으로 이끌도록 기도하자.

4 연합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기독교 교회는 분열되었다. 이스라엘 기독교는 아랍인 약 80%, 외국인(이집트인, 에티오피아인, 그리스인, 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이탈리아인 등) 약 12%, 유대인 8%로 이루어져 있다. 가톨릭(5개 전례), 정교회(9개 전통), 개신교/독립교회(20개가 넘는 교단, 많은 개교회와 100개가 넘는 선교단체)가 있다. 역사, 인종 갈등, 국가 기원, 종말론, 신학의 제2영역을 넘어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5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에는 메시아닉 유대인, 외국인 신자, 아랍계 이스라엘 기독교인이 뒤섞여 있다. 세 집단 모두 최근에 이민과 개종을 통해 성장했는데,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과 외국인 신

자 집단이 두드러진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모임이 120개가 넘는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그 다음으로 많고(50개), 암하라어를 사용하는(에티오피아인) 8개 교회와 여러 유럽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모임이 그 뒤를 따른다. 이스라엘 태생의 메시아닉 유대인은 약 1,000명이다. 다음을 위해 기도하자.

- 1)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증거하고 인내하도록.** 하레디는 복음주의자를 유대교를 위협하는 위협인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을 중상하고 이따금 괴롭힌다. 기독교인과 메시아닉 유대인을 관용하는 편이나, 극정통주의에서 점점 강하게 개종을 반대하고 있다.
- 2) **국가와 사회, 가족의 압박에도 법적으로 온전히 이민과 사회적 수용에 대한 권리를 누리도록.** 이스라엘 법은 국가 정체성과 유대인의 종교적 정체성이 하나라고 말한다. 세속적인 유대인은 시민이 될 수 있으나, 기독교인인 유대인은 그럴 수 없다.
- 3) **유대인다움을 명료하게 가르치고 이해하도록.** 신약의 진리를 손상하지 않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 나사렛에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할 성경 훈련 대학이 있다.
- 4) **아랍 복음주의자는 개신교와 독립교회 교단에 더 많다.** 그러나 총 4,000명 미만이다. 이들 가운데 무슬림에서 개종한 신자는 몇 십 명뿐이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가 고무적인 비율로 성장하고 있으나, 그들은 급속하게 서구권으로 이주하고 있다.

6 **메시아닉 유대인과 아랍 기독교인의 연합.**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과 아랍 신자의 관계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형성된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Convention of Evangelical Churches)와 팔레스타인 당국에 있는 동등한 기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 유대인과 아랍 신자는 전국 복음주의 위원회(National Evangelism Committee)를 통해 협력 사역을 펼치고 있다.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종 보고되지는 않지만, 다른 민초기 관들은 배경이 매우 다른 이 두 신자 집단이 나머지 지역에 좋은 본보기로서 화해와 우호의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러한 발전을 의심하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예수(Jesus)/예슈아(Yeshua)/이사(Isa)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건디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자.

7 **주요 전도 대상.**

- 1) **극정통주의자인 하레디는 인구의 10%뿐이지만,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유대인다움을 보존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거리를 두고 정치에 참여한다는 정책을 유지한다. 50% 이상이 최저 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한다. 강한 종교적 율법주의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기란 쉽지 않다. 현대의 바리새인인 이들이 니고데모처럼 변화하도록 기도하자.
- 2) **구소련과 폴란드에서 온 유대인은 현재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변화시켰고, 이미 메시아닉 유대인에서 다수를 구성하며, 대부분의 집단보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화되어야 할 사람이 많다.
- 3) **에티오피아 유대인(베타 이스라엘)은 10년 전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후, 환멸을 느끼고 주로 가난한 도시 최하층이 되었다.** 약 12만 명 가운데 메시아닉 신자는 2,000명 미만이다.
- 4) **아랍인.** 90% 이상이 무슬림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기독교인의 다수가 아랍인이다. 이스라엘의 차별 대우, 이슬람교의 핍박, 국제적 무지, 그들의 곤경을 향한 무관심이 모여 천천히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
- 5) **웨스트뱅크와 골란 고원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거주하는 드루즈족 공동체(12만 명).** 그들은 국외자에 가깝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운동이 시작되어 가속화되고 있다. 드루즈족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드루즈인을 반대하는 소리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 6) **외국인 근로자.** 안전상의 이유로 팔레스타인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다수의 루마니아인, 중국인, 필리핀인, 가나인, 니제르인이 그들을 대신했고, 더 최근에는 수단의 피난민이 이집트를 통해 들어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불법 노동자를 단호하게 조치하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다.
- g) **청년과 어린이.** 이들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한 미래, 무종교적 태도, 뉴에이지 개념, 많은 사이버 종교,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에게 환심을 얻으려는 비정상적인 집단을 직면하고 있다. 더 가난한 이민자의 자녀는 경제적·교육적으로 심한 불이익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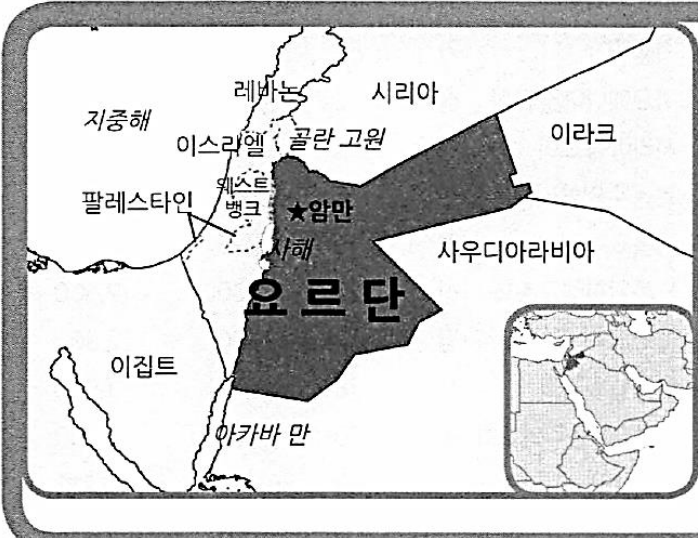
8 **개신교의 선교 인력**은 신변 안전 문제와 함께 자비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확실히 1,000명은 넘는다. 때때로 그 땅의 완고함과 성취하지 못한 비전 때문에 환멸을 느낄 수 있으나, 이스라엘 사회는 일반적으로 매우 열려 있다. 많은 사람이 불확실성, 갈등, 고통에서 벗어날 진정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수년 동안 씨를 뿌려 기독교에 반하는 오랜 편견을 부쉘은 사역이 현재 열매를 맺고 있다. 외국인 기독교인은 복음 전도에 힘쓰며 성장하고 있는 지역 교회와 사역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서 사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내지 사역을 하는 기독교 사역자는 종종 비자를 얻거나 갱신하기가 어렵다.

9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자)**은 낮은 출산율, 이스라엘로의 이주, 잡혼, 세속주의, 다른 종교로의 개종으로 그 수가 줄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유대인은 8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가장 크게 집중된 곳은 미국(530만 명), 구소련(100만 명), 프랑스(50만 명), 캐나다(37만 명), 영국(28만 명), 독일(20만 명), 아르헨티나(18만 명) 등이다. 뉴욕에만 160만 명의 유대인이 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은 많이 열려 있지만, 다른 지역의 유대인은 덜 개방적이다. 프랑스 같은 곳에는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다. JFJ(세계적으로 216명의 사역자), CPM(161명), MT, CWI, CMJ,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구하는 카스파리 센터(Caspari Center) 등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의 사역은 개인과 가정에 대해 오랫동안 인내하며 애정을 쏟아야 한다. 이방인 교회에서 유대인의 생존 문제에 더욱 민감해지도록, 교회에 남아 있는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자.

10 **지원 사역.**

- 1) **언어가 다양한 만큼 기독 문서와 성경**은 복음을 퍼뜨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러 국가에 있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인도주의적 사역과 더불어 성서공회(Bible Society)는 해마다 11만 부가 넘는 성경과 신약성경, 쪽복음을 배포한다. OM 선교회도 문서 배포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하계펜 출판사(HaGefen Publishing)와 케렌 아흐바 메시히트(Keren Ahvah Meshihit) 모두 아동을 위한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포함하여 현대 히브리어로 된 문서를 번역하고 제작하는 출판사다. 기독교 출판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히브리어, 러시아어, 아랍어, 암하라어 등으로 된 기독 문서와 성경이 더 많이 제작되도록 기도하자. 메시아닉 유대인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이 4종 있고, 일부는 독자층이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선다. 많은 가정에 신약성경이 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도록 기도하자.
- 2) **학생 사역**은 성장했으나, 청소년과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매우 절실하다. 이스라엘에 있는 IFES와 연계된 학생 운동인 기독 학생 연합(Fellowship of Christian Students)은 150명의 학생이 모이는 10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섬기는 마음(Hearts to Serve)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사역이다. 둘 모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학생의 화해에 집중한다.
- 3) **예수님의 삶을 다룬 영화.** 영화 <예수>는 10개 언어로 제작되었다(히브리어, 이디시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현대 표준 아랍어, 영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암하라어, 아디게어). 다른 기독교 영화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영화가 곳곳에서 상영되도록, 이러한 영화를 보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4) **라디오.** TWR, FEBA, IBRA, 네티비아(Netivyah)는 히브리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장시간 동안 라디오와 인터넷 방송을 내보낸다.
- 5) **웹사이트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자료와 자원, 토론장을 제공하는데, 다양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 이스라엘에서 비중 있게 널리 사용되며, 사역 잠재력이 엄청나다. 성령께서 이러한 사이트들로 구도자를 이끄시도록 기도하자.



요르단

Jordan (Hashemite Kingdom of Jordan)
8월 2-3일 · 아시아

지리

면적 89,206km². 요르단 강 동부 지역에 농업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다.

	인구 수(명)	연성장률(%)	인구밀도(명/km ²)
2010	6,472,392	3.06	73
2020	7,518,599	1.56	84
2030	8,616,498	1.27	97

수도 암만 1,105,402명. 도시화 78.5%. 15세 이하 인구 35%. 평균수명 72.4세.

종족

과거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인, 쿠웨이트인, 이라크인이 대규모로 이주해서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 없다.

아랍인 95.4%. 팔레스타인인 33.2%, 이스트뱅크 요르단인 31.3%, 이라크인 13.8%, 베두인족 4.0%.

요르단 소수 종족 2.2%. 아디게이족(코카서스인) 1.6%,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족, 투르크멘족, 체첸족.

비요르단인 2.4%. 아시리아인, 그리스인, 서구인, 파키스탄인 등.

문자해독률 91.1%. 공용어 아랍어. 전체 언어 16. 토착어 10. 성경이 번역된 언어 전 2, 신 2, 부 4.

경제

지난 60년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가난과 실업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고 경제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주된 수입원은 관광, 인, 농산물이다. 요르단은 석유가 전혀 없으며 물도 거의 없다. 1999년 이후 압둘라 왕이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인간개발지수 182개국 중 96위. 공채 GDP의 62.2%. 1인당 소득 3,626달러(미국의 8%). 실업률 14.5%.

정치

1918년까지 터키 제국의 일부였으며, 1946년에 영국에서 독립하였다. 압둘라 왕이 실권을 쥐고 있는 입헌군주제다. 중동의 혼란으로 국토를 상실하고 대규모 난민이 들어오고 경제가 붕괴되면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요르단은 웨스트뱅크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인이 국가에서 가장 큰 집단이다. 온건한 아랍 국가이며 서구 동맹국이다. 2005년에 일어난 자살 폭탄 사건은 요르단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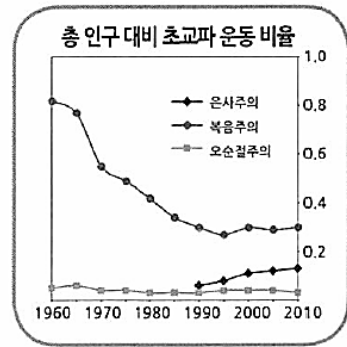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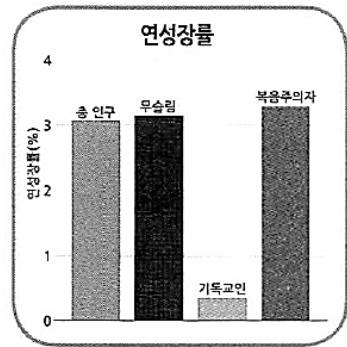
이슬람교(수니파)가 국교이지만, 헌법은 종교 차별을 금하고 종교적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장려한다. 분명 공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며 비교적 자유롭지만, 복음주의 교회는 어느 정도 압박당하고 있다.

종교	인구 비율(%)	신자 수(명)	연성장률(%)
이슬람교	96.47	6,243,917	3.1
기독교	2.24	144,982	0.4
무종교	1.00	64,724	3.1
기타	0.28	18,123	3.1
바하이교	0.01	647	3.1

기독교	교단(개)	인구 비율(%)	최대교인 수(명)	연성장률(%)
개신교	16	0.23	15,000	3.2
독립교회	2	0.09	6,000	6.7
성공회	1	0.06	4,000	-0.5
가톨릭	3	0.40	26,000	-3.5
정교회	4	1.46	94,000	0.8
유사기독교	1	<0.01	<300	2.3

교단	종파	교회(개)	교인 수(명)	최대교인 수(명)
그리스정교회	정	26	40,223	72,000
가톨릭	가	60	14,857	26,000
아르메니아정교회	정	2	9,581	16,000
시리아정교회	정	1	840	4,200
복음주의루터교	신	6	2,395	4,000
감독교	성	11	2,275	3,800
요르단침례교총회	신	25	1,500	2,500
쿵트교회	정	2	1,150	2,300
하나님의성회	신	10	1,200	1,950
이라크복음주의교회	독	10	1,000	1,800
기타[15]		53	6,784	10,218
계[27]		206	81,805	144,768

초교파집단	인구 비율(%)	신자 수(명)	연성장률(%)
복음주의			
복음주의	0.3	19,116	3.3
갱신주의			
은사주의	0.1	8,328	4.0
오순절주의	<0.1	2,250	1.1



기도 제목

1 압둘라 왕의 통치는 약속과 희망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의 전쟁과 그 결과로 야기된 혼란은 국가에 큰 압박을 주었다. 두 차례 이라크 전쟁에서 도피한 100만 명이 넘는 이주자는 요르단의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강화했다. 그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여전히 요르단에 남아 있다. 관광산업 전망이 밝은 편이었는데, 2005년 이슬람주의자의 자살 폭탄으로 요르단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온건파와 이슬람주의자의 정서 사이에 증대하는 긴장은 더 큰 어려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의 평화와 왕, 정부를 위해 기도하자.

2 기독교인은 압박 받고 있는 공동체다. 독립 이후 낮은 출산율과 높은 이주율로 교회는 수적으로 쇠퇴했다. 게다가 무슬림 난민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정치화된 이슬람교 세력이 커지면서 기독교인, 특히 복음주의자가 받는 압박이 가중되었다. 1980-2010년에 걸쳐 요르단 기독교 인구는 총 인구의 6.5%에서 2.2%로 떨어졌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의회에서, 그리고 흔히 영향력 있는 지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는 요르단 사회와 역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이 요르단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비기독교인뿐 아니라 명목상 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자.

3 복음주의 교회는 1995-2010년에 2배가 되면서 고무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신자들은 50개가 넘는 교회와 그보다 많은 가정 모임에서 모이고 있다. 새신자는 대부분 명목상의 기독교 공동체 출신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무슬림이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해마다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말미암아 당국에서 교회를 조금 더 압박하고 있다. 전통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와 무슬림 배경 출신 신자의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개선되고 있다. 최근 형성된 복음주의 집회는 작은 복음주의 인구에 형성된 다양한 교단에 균형을 잡아준다. 사실상 교회는 상당히 잘 동역하고 있다. 요르단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기독교인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협력하도록 기도하자.

4 이주를 통해 잠재적 지도력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신자 공동체가 고갈되고 있다. 평신도 지도자와 훈련된 전임 사역자 모두 크게 부족하다. 그러나 몇몇 선교단체와 TEE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아랍 지도자가 요르단과 더 넓은 아랍 세계에서 사역하기 위해 훈련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요르단 복음주의 신학교 사역은 전략적이다. 교육과 지도력 개발에 신학교가 꾸준히 영향력을 끼치도록 기도하자. 청년 사역, 기독교 서점, 기독교 동아리 사역은 최근 수년 동안 열매가 있었다. 더 많은 요르단 신자가 전임 사역으로 부름 받도록 기도하자.

5 종교의 자유는 커져가는 종교 갈등 속에서 재난이 될 수 있다. 이 나라는 많은 기독교 활동과 사역의 중심지이며, 중동에서 진행되는 많은 기독교 사역이 요르단에서 일어나는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개종자가 삶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가족, 직장, 사회에서 압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주는 종종 명백하고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요르단에 남아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 기도하자.

6 외국인 기독교인의 사역 기회는 위협당하고 있으나 중요하다. 극단주의 무슬림에 대한 탄압으로 얼마 동안 기독교 사역이 폐쇄되고 비자가 거부당했다. 몇몇 선교단체는 주로 국내에 있는 교회를 지원하고 고양시키며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등 폭넓게 활동한다. 요르단에는 많은 사람이 아랍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아랍어를 가르치는 언어 학교가 있다. 외국인의 삶을 통해 주 예수님께 호감을 느끼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하자. 적절한 위치에 있는 요르단 교회가 선교 비전에서 성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자.

7 요르단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라크의 격변과 이슬람주의의 치명적인 폭력으로 많은 사람이 이사 알 마시(Isa al-Masih), 즉 예수를 검토하는 데 마음을 연다. 모든 요르단인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지도록 기도하자. 특별히 다음을 위해 기도하자.

1) 무슬림. 많은 사람이 여전히 분명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 무슬림에게 민감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도하자. 성공한 몇 가지 방법으로는 문서, 매체 사역, 관계 전도, 개발 프로그램, 가정 모임, 동아리 등이 있다. 핍박 속에서 개종자들이 보호 받도록 기도하자. 무슬림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수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슬람교에서 개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도록 기도하자.

- 2) 요르단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 많은 사람이 전통적인 고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2세대 또는 3세대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요르단인의 삶으로 통합되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환멸과 괴로움, 좌절을 겪는데,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
 - 3) 이라크 난민. 두 차례의 걸프 전쟁 동안, 그리고 전후에 약 100만 명의 이라크인이 요르단으로 도피했다. 수년이 지났지만 거의 절반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사역(요르단 복음주의 구제 개발 위원회[Jordan Evangelical Committee for Relief and Development], CMA, WVI, 티어펀드[Tearfund])은 매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동시에 요르단 교회는 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사역을 한다. 요르단이 이들 난민에게 베푸는 환영은 약간 부자연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이라크 기독교인은 요르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훈련과 자원에서 이익을 얻는다. 교회가 난민에게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허락되도록 기도하자. 이 사역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 4) 30만 명의 베두인족. 많은 사람이 여전히 유목민이다. 일부(이집트나 아랍 농부[fellahin])는 정착하고 있어서 더 쉽게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 신자는 매우 극소수이나, 그들을 대상으로 몇몇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진정한” 아랍인을 위한 더 특별한 전도 활동을 위해 기도하자.
 - 5) 돔 집시는 숨겨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다. 유럽 로마니 집시의 사촌격인 돔 집시에게는 총체적 사역과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특히 오디오 형식)이 매우 절실하다.
 - 6)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은 국적이 다양하다. 사우디 아랍인과 걸프 아랍인은 여름에 방문한다.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온다. 아디게이족, 드루즈족, 체첸족은 꽤나 큰 소수 집단을 형성한다. 그들이 요르단에 있는 동안 복음을 만나도록 기도하자.
- 8** 다수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활동과 가정 교회의 발전은 아직도 성취되지 못했다. 아마도 교회의 10%만이 무슬림과 의미 있게 상호 작용할 것이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나누고, 가정 모임을 발전시키는 비전을 붙잡도록 기도하자. 복음 전도와 가정 교회 모두 교회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 9** 매체 사역. 요르단 상황에서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문서가 매우 중요하다. FEBA, IBRA, TWR에서 방송하는 아랍어 라디오(일주일에 49시간)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위성 텔레비전도 영향력이 크다. SAT-7, 알-하야트(Al-Hayat), 미라클 채널(Miracle Channel) 등은 아랍어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장족으로 진보하고 있다. 아디게이어, 구어체의 이집트어, 표준 아랍어로 영화 <예수>를 시청할 수 있다. 장기적인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자.
- 10** 아랍어로 된 문서는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점점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암만에 3개의 기독교 서점이 있다. 그곳은 성공적인 성경과 기독교 문서 사역의 핵심으로, 성서공회(Bible Society) 등에서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 센터에 있는 많은 자료가 이라크와 다른 아랍 국가로 보내진다.